

PEOPLE

2025년 8월 1일 금요일



나주, 여성친화기업 현판 수여 로엘에스엠·금하테크 선정

나주시는 최근 청사 소회의실에서 여성친화기업 인증 현판 수여식을 열고 여성 근로자가 일하기 좋은 기업환경을 조성한 2개 기업에 인증 현판을 수여했다고 31일 밝혔다.

나주형 여성친화기업은 지역에서 2년 이상 경영하고 전체 근로자가 300인 미만인 여성 근로자 비율이 30% 이상인 기업 가운데 유연한 근로시간 보장, 출산휴가, 육아휴직제 운영 등 여성친화적 조직 문화 조성을 위해 노력하는 기업을 선정해 인증하는 제도다.

올해 여성친화기업으로 선정된 곳은 ㈜로엘에스엠과 주식회사 금하테크로 최고경영자의 의지와 고용평등 실천, 직원 근무 현황, 일과 생활균형 제도 운영, 성희롱 예방교육 이행 여부 등 5개 항목에 대한 심사와 '여성친화도시 시민참여단'의 현장 실사를 거쳐 최종 선정됐다. 나주=조한진 기자 pose007@



광주보훈병원, 정책공유 워크숍 의료진과 병원 운영 방향 등 공유

광주보훈병원은 최근 의료진을 대상으로 '정책 공유 워크숍'을 갖고, 포괄 2차 종합병원 지정에 따른 병원의 운영 방향과 중점 추진 과제를 공유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워크숍은 이삼용 병원장의 주제로 의료진과 함께 병원의 비전과 과제를 논의하는 소통의 자리로 진행됐다. 변화하는 의료 환경 속에서 공공의료기관으로서 수행해야 할 역할과 향후 전략에 대해 의료진과 공감대를 형성하는 데 중점을 뒀다.

이삼용 병원장은 "포괄 2차 종합병원 지정은 병원의 책임과 기능이 한층 확장됐음을 의미한다"며 "중등도 환자를 수용할 수 있는 병상 구조 개편과 진료체계 정비에 핵심 과제다"고 강조했다.

이산하 기자 goback@gwangnam.co.kr



LH 광주전남지역본부

폭염대비 건설현장 안전 간담회

LH 광주전남지역본부는 폭염 대비 주택건설현장을 찾아 근로자와 안전소통 간담회를 가졌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폭염으로 인한 온열질환 예방을 위해 건설현장 근로환경 점검과 근로자 의견 청취를 위해 마련했다.

특히 올해는 예년보다 무더위가 장기화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옥외 근로자 온열질환 예방 수칙, 혹서기 건설현장 사고사례, 행동요령 등 다양한 정보를 제공했다. 또 건설현장 근로자를 위한 이온음료, 안전키트 등 혹서기 물품을 지원했고 빈틈없는 사업장 안전관리를 당부했다. 송대용 기자

한중 우의 다진 '삼계탕 만찬'...문화·교육 협력 강화

한중경제문화교육협회 광주지회 중국 남경전매대학생 환영 행사 "문화 이해하고 우정 나누길 바라"

(사)한중경제문화교육협회 광주지회(회장 이경보)는 30일 중북을 맞아 광주시 상무지구 에 위치한 '고려조삼계탕'에서 특별한 환영 만찬을 열었다.

행사에는 한국을 방문 중인 중국 남경전매대학교 학생 40여명과 주광주중국총영사관 10여명의 직원들이 초청해 삼계탕 보양식을 함께 나누며 무더운 여름을 이겨낼 힘을 북돋고 한중 양국의 문화교류와 우의를 다지는 시간을 가졌다.

이경보 회장은 환영사에서 "함께 만나서 식사를 할 수 있어서 행복하다"면서 "이번 행사는 청년들이 양국 문화를 이해하고 우정을 나누는 계기가 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지역 차원의 민간 외교를 꾸준히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주적하 주광주중국부총영사는 "많은 한중협회 회원들까지 참석해서 중국대학생들을 환영해주고 귀한 음식까지 대접해주어 너무 감사한



한중경제문화교육협회 광주지회가 30일 광주 상무지구의 고려조삼계탕에서 중국 남경전매대학교 학생들과 주광주중국총영사관 관계자들을 초청해 중북 맞이 만찬을 함께하며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다"며 "모두가 한국 음식이 너무 맛있다"고 한다면 감사의 뜻을 전했다.

중국 학생들은 "대한민국의 삼계탕이 이렇게 맛있는 줄 몰랐다"면서 "따뜻한 환대와 정성 가득한 음식 덕분에 광주에서의 추억이 특별하게 남을 것 같다"며 모두들 행복한 모습으로 감사

인사를 전했다.

(사)한중경제문화교육협회는 일정한 자격요건을 갖춘 회원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한중민간 단체로 전국 13개 지부로 구성되어 있다.

광주지회는 100여명의 회원으로 구성돼 매년 중국을 1회 이상 중국방문을 통해 양국의 민간

교류역할을 활발하게 하고 있는 단체다.

특히 이번 만찬은 (사)한중경제문화교육협회 광주지회가 주관한 민간 교류 행사중의 일환으로, 향후 한중 양국 간의 지속적인 문화·교육 협력에 다짐될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산하 기자 goback@gwangnam.co.kr

이근배 전남대 총장, 기초질서 준수 챌린지 참여

다음 주자 김춘성 조선대 총장 지목

이근배 전남대학교 총장이 '기초질서 지역사회 붐 조성' 릴레이 캠페인에 참여했다.

31일 광주경찰청과 전남대 등에 따르면 이근배 총장은 이날 대학본부 5층 집무실에서 '우리의 작은 노력이 큰 안전을 만듭니다'라는 문구가 적힌 피켓을 들고 생활 속 기초질서 지키기 챌린지에 동참했다.

피켓에는 교통질서(새치기 유턴, 꼬리물기·끼어들기, 비긴급 구급차 범용 위반), 생활질서(광고물 무단 부착, 쓰레기 투기, 음주소란 등), 서민경제 질서(노쇼·악성리뷰, 무단취식·주취폭력, 매표로 이용 압표 예매 등)가 안내됐다.

이번 챌린지는 광주경찰청과 광주시 자치경찰위원회가 주최하며, 각 기관과 단체장은 후속 릴레이 주지를 자유롭게 지명하는 방식으로 이어지고 있다.

박준성 광주경찰청 생활안전부장이 시작한 이



번 캠페인은 안전 광주시자치경찰위원회에 이어 이근배 총장이 3번째로 참여했다.

다음 참가자는 김춘성 조선대 총장이 지목됐다.

광주경찰청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공개되는 이번 챌린지는 시민대상 이벤트도 진행한다. 참여자에게는 포스터·포송이 인형 등 소정의 기념품이 제공된다.

임영진 기자 looks@

전남자치경찰위, 다문화 안전 유관기관 협업

전남도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정순관)는 유관기관이 참여하는 다문화 안전 분야 실무협의회를 지난 30일 개최해 내외국인 모두가 안전한 지역 만들기를 위한 협업을 강화키로 했다.

회의에는 전남도 이민정책과와 사회재단과, 전남경찰청 범죄예방 대응과, 전남이민외국인종합지원센터, 전남다문화가족지원센터, 다국어 안전정보 제공 앱 개발 전문업체 다문화플랫폼 등 7개 협력부서가 참여했다.

이들은 △외국인 근로자 인권보호를 위한 안내 배부·홍보 △외국인 밀집지역 안전시설 확충 △외국인 자율방범대 확대 △다국어 안전정보 플랫폼 개발 △다국어 교통안전 리플렛, 외국인 정착생활 가이드 '전남웰컴북'과 '자치치안 웰컴키트' 제작 △외국인 긴급재난 문자 서비스 확대 △외국인 계절근로자 종합지원 등 다문화 안전정책



을 심도 있게 협의하고 발전적 시책 방향을 모색했다.

특히 최근 지역에서 발생한 외국인 근로자 인권 침해 사건에 대해 모두의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는데 공감하고, 외국인과 도민의 안전, 인권 감수성 제고를 위한 유관기관 협력을 강화하며, 다국어 안전정보 제공 앱 개발 등 디지털 기반 치안 정책을 본격 추진하기로 했다.

이현구 기자 gnnews1@gwangnam.co.kr

코레일, 광주송정역 선상통로 고온 현상 해결

한국철도공사(코레일) 광주본부는 광주송정역 선상통로의 고온 현상에 대응하고자 지붕 상부에 환기장치 등을 설치했다.

31일 광주본부에 따르면 송정역사 주출입구부터 열차 탑승 직전까지의 연결 통로가 야외에 노출된 탓에 높은 온도 등 불편을 호소하는 이용객들의 민원이 잇따랐다.

문제점을 해소하고자 광주본부는 예산 2500만 원을 투입, 연결통로 지붕 상부에 무동력 환기장치 9대(1200만원)를 마련했다. 또 내부 온도를 줄이기 위해 냉풍기 4대(1300만원)를 설치했다.

이와 함께 고객들에게 얼음물을 나누며 광주송정역의 만족도와 개선점 등을 청취하는 '시원한수(水)요일' 캠페인'을 오는 20일까지 진행한다.

한국철도공사 광주본부 관계자는 "이번 캠페인을 통해 고객 불편을 적극 해소하고 실질적인 환경



개선 노력을 알리는 소통이 장으로 만들겠다"면서 "앞으로도 고객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더 안전하고 쾌적한 철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임영진 기자 looks@

한국마사회 광주지사, 성금 800만원 전달

광주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한국마사회 광주지사가 800만원의 성금을 전달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날 한국마사회 광주지사서 진행된 전달식에는 장영환 한국마사회 광주지사를 비롯한 임직원들과 동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관계자, 광주사랑의열매 직원 등이 참석했다.

한국마사회광주지사는 동구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500만원, 계림1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300만원을 기탁한다. 성금을 통해 동구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폭방촌 거주민을 위한 치과 치료 상생 희망브릿지 지원 사업을 실시한다. 의료 사각지대에 놓인 비거주시설 거주자들에게는 실질적인 기초 치과 진료 서비스가 제공된다.



다. 계림1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학업 기회 부족으로 비문해 상태인 만 65세 이상 어르신에 대상으로 교육·현장학습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한글배움터를 운영한다. 기초 한글수업과 함께 교재·학용품 지원, 현장학습 등 활동이 포함된다. 임영진 기자



광주시동구새마을회, MZ와 함께 5·18민주화운동 현장체험 광주시동구새마을회(회장 김대영)는 지난 30일 광주동구청년새마을연대(회장 기경민) 회원들과 함께 MZ세대 청소년들 60명을 대상으로 5·18민주화운동 현장체험을 실시했다. 사진제공=광주시동구새마을회



한국외식업 중앙회, 폭우피해 회원업소 구호물품 지원 한국외식업 중앙회는 31일 광주 광산구 월곡동에서 김우석 한국외식업중앙회장과 이은행 한국외식업 광주지회장, 5개구 지부장 및 임직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한국외식업 광주지회 폭우피해 회원업소 구호물품 지원 전달식을 가졌다. 사진제공=한국외식업 중앙회 광주지회